

약점 공략 문법편 _글장이수능국어

빠른 정답

1	②	2	③	3	⑤	4	④	5	②
6	④	7	④	8	③	9	②	10	③
11	①	12	②	13	②	14	⑤	15	④
16	②	17	②	18	⑤	19	③	20	④
21	④	22	①	23	④	24	③	25	③
26	⑤	27	④	28	④	29	⑤	30	①
31	①	32	⑤	33	③	34	③	35	⑤
36	②	37	④	38	③	39	②	40	④

해설

1. [출제의도] 국어의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.

‘저희’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. ‘저희 반 아이들’에서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대한 높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
[오답풀이] ① 종결 어미로서 상대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. ③ 선어말 어미 ‘-시-’는 ‘주다’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. ‘드리다’는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로서 객체 높임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선물을 받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. ④ 높임의 대상인 ‘아버지’의 신체이므로 선어말어미 ‘-시-’를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. ⑤ ‘어르신’과 ‘모시다’는 문법 요소가 아니라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다.

2. [출제의도] 단어의 의미 확장을 이해한다.

‘보다’, ‘듣다’, ‘느끼다’, ‘맛보다’, ‘말다’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이다.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. ‘보다’가 ‘관점’, ‘듣다’가 ‘수용’이나 ‘이해’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. 이불의 감촉을 느끼는 것과 통증을 느끼는 것은 모두 추상화된 확장 의미가 아니라 기본 의미이다.

3. [출제의도]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.

㉠과 ㉡에 사용된 ‘이다’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‘뿐이다’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.

4. [출제의도]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사례를 교정한다.

㉢은 ‘성실한’의 수식 대상이 ‘그’인지, ‘그의 동생’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. ‘성실한 그의, 동생’에서 ‘성실한’의 수식 대상을 ‘동생’이라고 볼 수 없고, ‘성실한, 그의 동생’에서 ‘성실한’의 수식 대상이 ‘그’라고 볼 수 없다.

5. [출제의도] 문장의 구조 이해하기

㉣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지만, ㉤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.

① ㉣은 두 문장이 대조의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고, ㉤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. ④ ㉤은 안건 문장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처럼 쓰인 경우이고, ㉢은 안건 문장이 ‘영수’를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.

6. [출제의도]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

‘총의사’에서 ‘의’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4. 규정으로 보아 [i]로 발음하지만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[붙임1]의 규정에 의해 ‘ui’로 적어야 한다.

① ‘송례문’에서 ‘례’의 ‘ㄱ’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.로 보아 ‘ㄱ’로 발음하며,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.로 보아 ‘ye’로 표기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② ‘도예촌’에서 ‘예’의 ‘ㄱ’은 표준 발음법

제2장 제5항 다만2. 규정으로 보아 [ㄱ]로 발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③ ‘퇴계원’에서 ‘계’의 ‘ㄱ’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. 규정으로 보아 [ㄱ]나 [ㄱ]로 발음할 수 있으나, [ㄱ]로 발음되는 경우 ‘e’로 표기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.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.

7. [출제의도]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

㉢은 ‘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’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, 고친 문장에도 ‘개방시키고 있습니다’로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. 이 경우 ‘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.’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.

8. [출제의도] 단어의 의미 관계와 쓰임을 안다.

‘키우다’뿐 아니라 ‘기르다’도 ‘인내심’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(추상명사)과 결합할 수 있다.

[오답풀이] ‘기르다’, ‘키우다’, ‘먹이다’는 ‘돼지를 키우다’에서와 같이 ‘(동물)을 사육한다’는 공통 의미를 가지는 유의 관계에 있다(㉠). 그런데 유의어는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서, 쓰임에 따라 의미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. 예컨대, ‘기르다’와 ‘키우다’는 ‘감나무’ 같은 식물을 가리키는 말과 결합하여 ‘재배하다’는 의미로 쓰이며(㉡), ‘인내심’ 같은 단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‘먹이다’에 비해 유의 관계의 폭이 넓다(㉢).

9. [출제의도] 주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.

주격 조사 ‘께서’는 주어(주체)가 높임의 대상일 때 붙는 것으로,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상관이 없다.

[오답풀이] ①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, ‘무엇이 어찌한다’에서 ‘무엇이’에 해당한다. ③ ㉠에서는 서술어 ‘했다’의 주어가 문맥상 ‘나’임이 분명하므로 생략되었다. ⑤ ‘친척도 서로 만나기’는 명사절로 그것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.

10. [출제의도]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.

‘산 책’에서 ‘산’의 ‘-ㄴ’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. ‘-ㄴ’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.

11. [출제의도] 정확한 문장 구성 방법을 이해한다.

‘라고’는 직접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사이므로 ‘가겠 다라고’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. 그래서 (가)에서 ‘라고’를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‘고’로 바꾼 것이다. (나)의 ‘환기’에는 이미 ‘공기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‘공기를 환기해야 한다’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된다. (다)에서 ‘규명하고’를 넣은 것은 원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.

12. [출제의도]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쓴다.

‘의논하다’는 주어, 목적어,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. 그런데 ‘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 했다.’라는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. 그러므로 이 문장을 ‘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.’로 고쳐 쓴 이유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.

[오답풀이] ① ‘예상’에 ‘미리’의 의미가 들어 있어 의미가 중복된다. ③ ‘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.’에서 ‘눈이 시리도록’은 ‘파란’과 ‘보았다’를 모두 수식할 수 있어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. ④ ‘읽혀지다’는 ‘읽다’에 피동 접미사 ‘-히-’가 결합된 ‘읽히다’에 ‘-어지다’가 다시 결합된 이중피동어이다.

13. [출제의도] 사전 활용하기

‘울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.’에서 ‘개구리가’의 ‘가’는 ‘로’로 바꾸어 쓸 수 있다. 하지만 ‘가[1]ㅁ’을 통해 볼 때, ㉠의 ‘가’는 ‘되다’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지, ‘아니다’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

상을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.

14. [출제의도] 문법 범주 이해하기

㉢의 ‘-기-’는 행위 주체인 ‘도둑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인 ‘경찰’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피동 접미사이다.

① ㉠에서는 행위 주체인 ‘할머니’를 높이기 위해 ‘먹다’의 높임말인 ‘들다’에 선어말 어미 ‘-시-’를 사용하고 있다. 또한 ㉡에서는 행위 주체인 ‘아버지’를 높이기 위해 ‘날리다’에 선어말 어미 ‘-시-’를 사용하고 있다. ② ㉠의 ‘-ㄴ-’은 현재를, ㉢의 ‘-었-’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. ③ ㉢의 ‘-리-’는 행위 주체인 ‘아버지’가 다른 대상인 ‘연’이 날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사동 접미사이다. ④ ㉢의 ‘-겠-’은 ‘가다’라는 행위에 대한 행위 주체 ‘나’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.

15. [출제의도]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

‘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.’에서도 비교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. ‘나’와 ‘책’이 비교 대상이라면 “주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.”라고 고쳐야 하고, ‘주호가 책을 좋아하는 것’과 ‘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’이 비교 대상이라면 “주호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.”라고 고쳐야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.

① ‘부르다’의 피동형은 접사 ‘-리-’를 사용한 ‘불리다’이므로 ㉠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. ② 동작의 주체가 ‘손님’이고 화자가 명령하는 상황이므로 해요체의 종결 어미 ‘-세요’를 사용한 ㉡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. ③ ‘설레다’의 명사형은 명사형 어미 ‘-ㅁ’이 결합한 ‘설렘’이므로 ㉢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. ⑤ ‘제품’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어서 ‘-시-’를 쓸 수 없으므로 ㉤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.

16. [출제의도]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

‘필요 있다’의 부정 표현은 ‘필요 있지 않다’가 아닌 ‘필요 없다’로 쓴다. ‘없다’는 ‘있다’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.

17. [출제의도] 사동표현의 바른 쓰임새를 평가한다.

<보기1>을 통해 ‘-시키다’는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. 이를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<보기2>의 ㄱ, ㄴ, ㄹ이다.

18. [출제의도] 높임 표현을 이해한다.

이 담화에서 모시는 동작의 대상은 ‘할머니’가 아니라 ‘어머니’이다. ‘모시다’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고 있다.

19. [출제의도]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이해한다.

‘차마’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여 ‘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’라는 뜻으로 사용된다. 따라서 ③의 문장은 ‘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.’ 등으로 고쳐야 문장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.

20. [출제의도] 연결어미 이해하기

ㄹ의 ‘-(으)니까’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‘비가’이고, 뒤의 주어는 ‘제가’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. ㄴ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‘비가’이지만,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‘네가’, 청유형일 때에는 ‘우리가’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. 따라서 ④에서 언급한 ‘-(으)니까’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.

21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4

㉢ ‘묻히고’에서 ‘묻-’은 받침이 ‘ㄷ’인 형태소이고, ‘-히-’는 접미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. <보기 1>에

근거할 때, ‘문-’의 ‘ㄷ’이 ‘-히-’의 ‘ㅎ’과 결합하여 [ㅄ]이 된 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[ㅈ]으로 교체되어 [무치고]로 발음되므로 적절하다.

① ㉠은 ‘불-’에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‘-이-’와 관형사형 어미 ‘-ㄴ’이 결합된 단어이다. 따라서 ‘불-’은 접미사의 모음 ‘ㅣ’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② ㉡의 ‘-이’는 형식 형태소이고, ‘날’의 받침 ‘ㅌ’은 [ㄷ]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③ ㉢에서 ‘이랑’은 모음 ‘ㅣ’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 ④ ㉣에서 ‘이불’은 실질 형태소로,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2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1

‘깍다[깍따]’는 ‘깍[깍]’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, ‘다[따]’에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. 두 가지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하므로 ‘깍다[깍따]’는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 경우이다.

②, ③ 첨가(‘ㄴ’ 첨가), 교체(비음화)가 나타난다. ④ 탈락(자음군 단순화), 축약(거센소리되기)이 나타난다. ⑤ 첨가(‘ㄴ’ 첨가), 교체(유음화, 된소리되기)가 나타난다.

23. [출제의도] 품사의 분류 파악하기 4

㉠에 조사는 ‘까지’, ‘는’, ‘을’, ‘도’가 있으며, ㉡에는 ‘께서’, ‘로’, ‘를’이 있다. 따라서 조사는 ㉠에 4개, ㉡에는 3개가 있다.

② ‘온갖’은 뒤에 오는 체언인 ‘재료’를 수식하는 수식언(관형사)이다. ⑤ 가변어는 ㉠에 2개(‘모르고’, ‘있다’), ㉡에도 2개(‘곱게’, ‘빚으셨다’)가 있다. ‘곱게’는 용언(형용사)인 ‘곱다’가 ‘고와’, ‘고우니’처럼 활용되는 형태이므로 가변어이다.

24. [출제의도] 품사의 통용 파악하기 3

‘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.’의 ‘모두’는 조사 ‘가’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(명사)이고, ‘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.’의 ‘모두’는 용언 ‘쏟았다’를 수식하는 부사이다.

① 수사와 관형사(수관형사)이다. ② 동사와 형용사이다. ④ 모두 조사이다. ⑤ 부사와 조사이다.

25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3

㉠의 ‘입문하여[입문하어]’에서 ‘입문’이 [임문]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의한 것인데, ‘집문서’가 [짐문서]로, ‘만누이’가 [만누이]로 발음되는 것 역시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.

① ㉠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인데 ‘급하다’가 [그파다]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. ② ㉡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인데 ‘뽀대다’가 [뽀때다]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. ④ ㉢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‘꿈같이’가 [꿈가치]로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. ⑤ ㉣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‘한여름’이 [한너름]으로 발음되는 것은 ‘ㄴ’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.

26. [출제의도] 조사의 쓰임 파악하기 5

⑤의 ‘처럼’은 체언에 결합하여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.

①의 ‘라도’는 체언에 결합하여 ‘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’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, ②의 ‘야’는 체언에 결합하여 ‘강조’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, ③의 ‘는’은 어미에 결합하여 ‘대조’나 ‘강조’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, ④의 ‘만’은 부사에 결합하여 ‘강조’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.

27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4

‘앤입[앤닙]’은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‘ㅣ’로 시작할 때 ‘ㄴ’이 새로 생기는 첨가 현상에 속하며, ‘설날[설랄]’은 ‘ㄴ’이 앞에 오는 ‘ㄹ’의 영향으로 ‘ㄹ’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속한다. 그리

고, ‘좋은[조은]’은 ‘ㅎ’이 탈락하는 현상에 속한다. 따라서 ㉠에는 첨가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, ㉡에는 교체와 탈락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. ‘논일’은 ‘ㄴ’첨가가 발생하므로 ㉠에 적합하고, ‘달는[달른]’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‘ㅎ’탈락과 더불어 교체 현상이 일어나므로 ㉡에 적절하다. ‘늦여름[느너름]’과 ‘나뭇잎[나문닙]’은 교체 현상으로 ‘음절의 끝소리’, ‘비음화’와 함께 ‘ㄴ’첨가가 나타나고, ‘달은[다은]’은 ‘ㅎ’탈락만 나타나며, ‘칼날[칼랄]’은 교체만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8. [출제의도] 접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4

‘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’의 의미를 더하는 ‘-보’는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. ‘꺾보’는 어근(명사) ‘꺾’에 접미사 ‘-보’가 결합하여 ‘잔꺾가 많은 사람’으로 의미는 더해지나 품사는 명사로 변함이 없으므로 품사가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.

29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5

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(교체), ㄴ은 자음군 단순화(탈락), ㄷ은 거센소리되기(축약)의 예이다. ⑤의 ‘할다 → [할따]’의 음운 변동 현상에는 탈락은 일어나지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. ㄴ과 ㄷ이 모두 일어난 예로는 ‘값하다 → [갑하다] → [가파다]’가 있다.

30. [출제의도] 각 품사의 특징 파악하기 1

㉠의 ‘칠’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‘개월’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관형사이다. ㉡의 ‘다섯’과 ㉢의 ‘팔’은 각각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‘관’, ‘년’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관형사이고, ㉣과 ㉤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수사이다.

31. [출제의도] 국어의 음운 규칙을 이해한다. 1

㉠의 ‘깍는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[깍는]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[깡는]이 된다. ㉡의 ‘휴만’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[흑만]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[휴만]이 된다.

32. [출제의도] 조사의 특성을 이해한다. 5

<보기>의 ‘뽕만으로’에서 보조사 ‘만’은 격 조사 ‘으로’ 앞에 붙어 있다. [오답풀이] ④ ‘어서요’에서 조사 ‘요’는 부사 ‘어서’ 뒤에 붙어 있다.

33. [출제의도]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3

㉠ ‘입학’은 ‘ㅍ’과 ‘ㅎ’이 만나 [ㅍ]으로 축약되어, [이팍]으로 발음되고, ㉡ ‘줄다머’는 ‘ㅎ’과 ‘ㄷ’이 만나 [ㅄ]으로 축약되어 [조타머]로 발음되는 ‘거센소리되기’에 해당한다. 또한 ㉢ ‘나눴다’는 어간 ‘나누-’와 어미 ‘-었다’가 만나 ‘나뒸다’로 축약되는 ‘어간과 어미의 축약’이며, ㉣ ‘뒸게’는 어간 ‘뜨이-’가 ‘뒸-’로 축약되는 ‘어간에서만 축약’에 해당한다. ㉤ ‘보였다’는 어간 ‘보이-’와 어미 ‘-었다’가 만나 ‘보였다’로 축약되는 ‘어간과 어미의 축약’에 해당한다. 따라서 ‘거센소리되기’에 해당하는 것은 ㉠과 ㉡이며, 용언의 음절 축약 중, ‘어간에서만 축약’에 해당하는 것은 ㉢, ‘어간과 어미의 축약’에 해당하는 것은 ㉣과 ㉤이다.

34. [출제의도]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3

“한쪽으로 휘어져 있다.”라는 뜻의 ‘굽다’와 “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.”라는 뜻의 ‘굽다’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.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“한쪽으로 휘어져 있다.”라는 뜻을 지닌 ‘굽다’는 ‘굽어서’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, “불에 익히거나 타게 하다.”라는 뜻의 ‘굽다’는 ‘구워서’로 활용되어 어간 ‘굽-’의 ‘ㅍ’이 ‘우’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

① “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.”라는 뜻의 ‘낫다’와 “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.”라는 뜻의 ‘낫다’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.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“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

다.”라는 뜻의 ‘낫다’와 “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.”라는 뜻의 ‘낫다’는 모두 ‘나아서’로 활용되어 어간 ‘낫-’의 ‘ㅌ’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 ② “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.”라는 뜻의 ‘울다’와 “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.”라는 뜻의 ‘울다’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.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“발라 놓거나 바느질한 것 따위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쭈글해지다.”라는 뜻의 ‘울다’와 “슬프거나 아프거나 너무 좋아서 견디다 못하여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.”라는 뜻의 ‘울다’는 모두 ‘울어서’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. ④ “미리 알려주다.”라는 뜻의 ‘이르다’와 “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.”라는 뜻의 ‘이르다’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.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“미리 알려주다.”라는 뜻의 ‘이르다’는 ‘일러서’로 활용되어 어간 ‘이르-’에서 ‘ㄹ’이 탈락하고 ‘ㄹ’이 생기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 “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.”라는 뜻의 ‘이르다’는 ‘이르러서’로 활용되어 어간 ‘이르-’에 기본 형태의 어미 ‘-어서’가 결합되지 않고 ‘-러서’가 결합되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. ⑤ “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.”라는 뜻의 ‘타다’와 “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.”라는 뜻의 ‘타다’는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이다. 이 용언들을 활용시키면 “불이 붙어 불길이 오르다.”라는 뜻의 ‘타다’와 “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.”라는 뜻의 ‘타다’는 모두 ‘타서’로 활용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.

35. [출제의도] 음운 변동 이해하기 5

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, ㄴ은 ‘ㅣ’나 ‘ㅣ’모음 계열 앞에서의 ‘ㄴ’첨가, ㄷ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, ㄹ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의 예이다. ⑤의 ‘집에 가’에서 ‘가’는 ‘가아’에서 ‘ㅌ’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
36. [출제의도] 음운의 동화 현상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. 2

‘집안일’이 [지바닐]이 아니라 [지반닐]로 소리 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. 합성 명사의 뒷말이 모음 ‘ㅣ’로 시작될 때 ‘ㄴ’이 하나 또는 둘이 겹쳐 나타나는 ‘ㄴ’첨가에 해당한다.

37. [출제의도] 형태소의 분류 기준 이해하기 4

<보기>에서 A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형식 형태소가 속한다. 따라서 조사 ‘에’와 어미 ‘-는’은 A에 해당한다. B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중,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형태소가 속한다. 따라서 어간 ‘있-’은 B에 해당한다. C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형태소이자,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형태소가 속한다. 따라서 ‘자리’와 ‘어느’는 C에 해당한다.

38. [출제의도] 자음동화와 ㄴ첨가 현상 이해하기 3

㉠ ‘막일’은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, 뒷말이 ‘이’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‘ㄴ’ 소리가 첨가되는데, [막닐]이 아닌 [망닐]로 발음한다. 그 이유는 앞말의 받침인 ‘ㄱ’이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‘ㄴ’의 영향을 받아 ‘ㅇ’으로 비음화 되었기 때문이다. 따라서 ‘ㄹ’의 영향으로 ‘ㄱ’이 비음화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.

① ㉡는 앞말인 ‘코’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인 ‘날’이 ‘ㄴ’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‘ㄴ’이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. ② ㉢는 앞말인 ‘색’이 자음 ‘ㄱ’으로 끝나고 뒷말이 ‘여’로 시작되므로 뒷말의 첫소리에 ‘ㄴ’ 소리가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. ④ ㉣는 앞말 ‘물’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‘야’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‘ㄴ’ 소리가 첨가되는데, [물낙]이 아닌 [물락]으로 발음한다. 그 이유는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‘ㄴ’이 앞말의 받침인 ‘ㄹ’

의 영향을 받아 ‘ㄹ’로 유음화되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. ㉕ ㉖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‘ㄹ’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‘ㄴ’이 첨가된 경우인데, 사이시옷을 추가하여 ‘잇몸’이라고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.

39. [출제의도]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2

‘파래서’는 어간인 ‘파랄-’, 어미인 ‘-아서’의 형태가 모두 변해,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

① ‘오너라’는 어간 ‘오-’에 명령형 어미가 결합될 때 ‘-아라’가 아닌 ‘-너라’로 활용한다. 따라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. ③ ‘지어’는 어간 ‘짓-’에 어미 ‘-어’가 결합할 때 어간 ‘짓-’에서 ‘ㅅ’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 ④ ‘묻다’는 어간 ‘묻-’에 어미 ‘-어’가 결합할 때 ‘묻-’이 ‘물-’로 변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. ⑤ ‘하다’는 어간 ‘하-’에 어미 ‘-어’가 결합하므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.

40. [출제의도] 연결어미 이해하기 4

ㄹ의 ‘-(으)니까’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‘비가’이고, 뒤의 주어는 ‘제가’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. ㄴ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‘비가’이지만,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‘네가’, 청유형일 때에는 ‘우리가’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. 따라서 ㉔에서 언급한 ‘-(으)니까’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.